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수소·에너지'도 신성장 稅특례·소부장 반도체 전략기술에 HBM 등 추가 (2025.01.16) -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수소와 에너지 관련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기반 수소 생산 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3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되어 일반 R&D보다 높은 공제 가능 - 반도체·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되어 소부장 고대역폭메모리 관련 기술에 대한 R&D 비용도 최대 50% 세액공제가 가능해짐. 이는 반도체 산업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
	□ 액화수소 충전소·드론 속도...정부, 연내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25.01.16)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와 드론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 현재 임시 안전 기준에 따라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두 분야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 - 산업부는 연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액화수소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 액화수소 충전소 관련 규제는 상반기, 드론 관련 규제는 하반기에 각각 마련될 예정 - 작년 기준 상용 액화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누적 14개소, 기체수소 충전소는 42개소가 구축. 액화수소 드론은 재난·구조 현장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체수소 드론보다 더 먼 거리의 비행이 가능한 장점
지자체	□ 밀양시, 나노산단 내 수소충전소 개소로 친환경 도시 도약 (2025.01.16) - 밀양시가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수소충전소를 개소하며 친환경 정책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 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와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시간당 120kg의 충전용량으로 승용차 24대 또는 버스 4.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 상태 -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가스기술공사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연중 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기로 결정. 이는 지역 내 수소차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 청정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수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시는 수소충전소 개소를 계기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며, 밀양시 거주자가 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33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수소차 보급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경제성·타당성 없이 추진" 논란 (2025.01.16) - 창원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중간보고를 통해 허성무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어 총체적 실패에 직면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 약 1000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대형 공공사업임에도 경제성과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 - 특위는 사업시행법인이 진행 중인 814억원 상당의 액화수소플랜트 구축계약이 필수 절차인 시운전과 현장시험을 거치지 않아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 또한 PF 대출 담보 제출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출연기관의 사업시행법인 재출자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승인한 사실도 확인 - 사업 실패의 책임을 두고 담당부서와 창원산업진흥원이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특위는 관련 중인들의 위증 및 책임회피성 발언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
	□ 광양시장 "철강산업 회복 기대...수소도시로 선도할 것" (2025.01.16) - 정인화 광양시장은 전남CBS '시사포커스' 신년대담에서 철강산업의 회복을 예상하며, 광양제철소가 고급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올해 광양시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확충,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농촌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 특히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이끌어낸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소도시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수소 생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 광양제철소의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 계획
	□ 일반수소 입찰시장 제도 개선 나선다 (2025.01.16) - 충남도가 탄소중립산업센터에서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틀 다른 지역보다 낮게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간담회를 마련. 산업부는 분산 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계통평가 배점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 발전 공기업, 지역 가스 사업자, 연료전지 전문 기업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 - 충남 등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일반수소 발전사업을 할 경우 계통평가 점수도는 도내 사업을 준비 중인 발전사, 가스사, 관계기업과 함께 연료전지 발전 확대 방안과 타 법에 의한 수소 입찰시장 예외 적용 등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향후 청정수소 입찰제도 개선 방안도 발굴하여 도내 친환경 발전 기반을 조성할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충남도,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 방식 개선 속도 (2025.01.16) - 충남도가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 중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 공기업, 제이비·미래엔서해에너지 등 지역 가스 사업자, 연료전지 전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 간담회에서는 충남 등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일반수소 발전사업 추진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통평가 점수 문제를 개선하고자 논의. 산업부의 분산 에너지 확대 방침으로 계통평가 배점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 도는 도내 연료전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수소 입찰제도 개선 방안도 발굴하여 도내 친환경 발전 기반을 조성할 계획
	□ 국내 최초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개점휴업 (2025.01.16) -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1년 전 준공됐으나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선부른 사업 추진으로 당초 세웠던 판매 계획이 틀어지고 PF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혈세 낭비 우려 -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는 총사업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1월에 준공되었으나, 실제 판매 실적은 전무한 상태. 연간 50억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규제 특례를 통한 액화수소충전소 건설과 SK·효성 등과의 물량 공급 논의를 통해 수요처 확보에 노력 중이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
	□ 국내 최초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개점휴업 (2025.01.16) -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1년 전 준공됐으나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선부른 사업 추진으로 당초 세웠던 판매 계획이 틀어지고 PF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혈세 낭비 우려 -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는 총사업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1월에 준공되었으나, 실제 판매 실적은 전무한 상태. 연간 50억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규제 특례를 통한 액화수소충전소 건설과 SK·효성 등과의 물량 공급 논의를 통해 수요처 확보에 노력 중이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
	□ 남양주, 친환경 수소에너지 활용 프로젝트 추진 (2025.01.19) - 남양주시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자원순환 기반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생산이 주요 목표 - 2025년 수소 생산 및 공급설비 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턴키입찰을 발주할 예정이며, 2026년 착공해 2028년 수소 생산 공급을 목표로 진행. 특히 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 - 남양주 수소도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1월 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자체	국토지주택공사와 수소도시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
	□ 서울시, 수소차 구매 지원 시작...'넥쏘' 대당 2950만원 (2025.01.19) -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7.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개선을 위해 수소차 구매 지원을 시작. 2016년부터 시작된 시범 보급으로 지난해까지 3333대의 수소차 보급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86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160대와 수소 버스 10대를 보급할 예정 - 수소차 구매시 시·국비 총 2950만원의 보조금과 함께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및 고속도로 통행료 4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 -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한 가용 충전량은 6120대 규모. 향후 수소 차량 증가에 대비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소를 꾸준히 확충할 계획
	□ 완주군 수소기업 BTE, 미국에 460억 수출 계약 (2025.01.19) - 완주군의 수소기업 (주)BTE가 미국 수소 솔루션 기업 H사와 3,500만 달러(약 46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수출 계약을 체결. 2020년 11월 창업한 수소 스타트업 기업으로 완주군에 수소 제품 양산 공장을 건설 중 - 완주군은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로 도약' 비전을 세우고 수소특화 국가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 중. 탄소융복합소재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통해 대용량 수소저장운송용기 개발 사업도 육성 - 현재 일진하이솔루스, 아헤스, 덕산에테르시티 등 수소전문기업 3개사와 비나텍, 플라스틱옵니엄, 가온셀 등 예비수소전문기업 3개사 등 1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우석대학교와 협력해 완주수소연구원도 개원 예정
	□ 경북도, 포항서 원자력 수소산업 육성 미팅 데이 열어 (2025.01.20) - 경북도가 포스코 국제관에서 원자력 및 수소 기업육성 방향을 모색하고, 도내 기업의 당면 현안 과제와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원자력·수소 산업 육성 미팅 데이'를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를 비롯한 25개 도내외 기업이 참석 - 주요 안건으로 소규모 기업의 원자력·수소 관련 기술 인증 및 규제 해소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앵커기업과 협업 및 정보 교류, 원자력·수소 분야 테스트베드 지원 등이 논의됨 - 경북도는 2024년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22억 지원을 통해 개발품 납품·시제품 제작·각종 인증획득의 기술개발 12건과 특허 출원 관련 판로개척 1건 등의 성과를 달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국가 수소특화단지 지정 · 관광산업 육성 ... 지역소멸 극복" (2025.01.21) -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은 삼척시가 국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 - 수소 관련 첨단 기술개발 및 생산 거점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 또한 동해안의 절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을 목표 - 지역 발전소 산업을 활용한 풍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산업과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산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 계획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국가 수소특화단지 지정 · 관광산업 육성 ... 지역소멸 극복" (2025.01.21) -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은 삼척시가 국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 - 수소 관련 첨단 기술개발 및 생산 거점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 또한 동해안의 절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을 목표 - 지역 발전소 산업을 활용한 풍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산업과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산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 계획
	□ 우주항공청, 2025년 신년인사회서 경쟁력 제고 다짐(2025.01.17) - 우주항공청이 2025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우주항공업계 산·학·연·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다짐. 윤영빈 청장은 2025년 우주항공산업이 민간주도 성장과 신흥국의 약진으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윤 청장은 누리호 4차 발사를 비롯한 발사체 개발, 미래항공기 개발, 첨단위성 개발, 위성 활용 등 전 영역에 걸친 민간주도 우주항공 경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 재사용발사체 기술 개발과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 기술 개발도 추진 - 세계 최초 L4 지점 우주관측소 구축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산·학·연과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인프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전 분야에서 우주항공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공산업 데이터 기반 조성에 앞장 (2025.01.19) -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강원산학융합원과 항공안전, 드론, 도심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조성에 협력하기로 합의. 항공산업 및 인공지능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빅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의 R&D 성과 활용 방안 마련과 항공분야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공동 연구 진행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기관들은 항공산업 및 인공지능 관련 연구사업·현안과제에 대한 상호 자문, 학술 및 교육활동 지원, 연구자료와 보고서 공유·활용·교류, 신규 연구개발 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할 예정
	□ 우주항공청, 누리호 4차·차종위 3호 하반기 발사 계획 발표 (2025.01.21) - 우주청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우주수송 기술 다변화 및 임무 확장을 위한 궤도수송선 등 선행기술 연구 착수 계획을 밝힘. 하반기에는 민간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관의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민간주도 우주수송 전환기를 마련할 예정 -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다목적실용위성 6호·7호 발사, 천리안 5호와 저궤도위성 통신기술 개발 사업 착수, 다목적실용위성 8호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 8월에는 우주소자·부품 검증용 위성개발 로드맵을 제시 - 세계 최초 우주망원경 스피어X를 NASA와 공동 개발하여 2월 실증 착수 예정이며, 제4라그랑주점 태양권 우주관측소 구축사업 기획과 함께 NASA와 협력하여 9월 달 우주환경 모니터 실증도 계획
	□ 우주항공청, 올해 R&D 예산 8064억 투입 계획 발표 (2025.01.22) - 우주항공청이 전년 대비 43.3% 증액된 8064억 원 규모의 2025년 R&D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고도화, 달착륙선 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 - 산하기관 운영비와 시설지원비로 1874억 원을 배정하고,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 등에 각각 1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 스페이스 파ioni어 사업(264억 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230억 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등을 지원하며, 누리호 고도화(1478억 원), 차세대 발사체 개발(1508억 원), 달착륙선 개발(450억 원) 등 주요 프로젝트도 추진
지자체	□ 순천시, 문화·우주·바이오산업 3대 경제축으로 2025년 업무 추진 (2025.01.16) - 순천시가 '2025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통해 문화·우주·방산, 바이오산업을 3대 경제축으로 설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 경제활력, 민생안정, 도시경쟁력 3개 분야로 나누어 실행계획과 정책을 점검 -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 및 콘텐츠 기업 이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우주·방산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 육성, 승주읍 일원에 620억 원을 투입한 그린바이오 혁신거점 조성을 계획 - 시는 지난해 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특구 3개 특구 지정, 전남 인구 1위와 예산 1위, 시 단위 청렴도 1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의료체계 개선, 복지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우주 도시' 고흥, 작년 관광객 566만 돌파...11% 증가 (2025.01.16) - 고흥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566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전년 대비 약 11% 증가를 기록.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주, 과학이라는 특별한 테마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와 마케팅 전략의 결과로 평가 - 축섬이 전년 대비 95%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봉래산과 팔영산 자연휴양림도 각각 45%, 43%의 증가율을 기록. 팔영산 권역은 전체 관광객의 35%를 유치하며 고흥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 고흥군은 2030년 방문객 1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우주과학열차, KTX 연계 상품 등 우주항공 중심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상품을 확장하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
	□ 김포시-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MOU 체결로 경제도약 발판 마련 (2025.01.18) - 김포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우주항공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 협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20여개의 회원사가 참여 - 협약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의 생태계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인재양성 및 취업 연계, 교육 및 훈련 지원, 연구개발 및 컨설팅, 전시회 및 홍보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 김포시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 중이며,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를 통해 16조2000억 원의 생산효과와 11만90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전망
	□ 우주항공·남해안관광 중심지로 사천공항 도약 계획...국제공항 승격 필요성 제기 (2025.01.19) - 경상남도가 사천공항의 기능 재편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군, 한국항공공사, 공군 제3훈련비행단,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반영을 위한 의견 수렴과 안전 운항 강화 방안을 논의 - 도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남해안관광개발, 항공 MRO 산업 성장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천공항 기능재편 연구용역을 추진 중. 도민 74.4%가 국제공항 승격 필요성에 동의 - 도는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중합계획에 사천공항 터미널 증축·활주로 연장 등 기능 재편과 국제공항 승격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
	□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위한 광역계획 수립...용역 착수(2025.01.21) - 경남도가 우주항공청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워킹그룹 키오프회의'를 개최. 공간계획, 산업생태계, 인력양성, 문화관광, 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의 워킹그룹을 구성 - 연구용역은 광역적 차원의 거점지역 전략적 공간계획, 주변지역 기능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의 우주항공산업 초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슈퍼클러스터 구축계획을 포함 -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협업하여 세계 유일의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할 예정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 취임..."바이오·수소 등 미래에너지 선도" (2025.01.20) - 한국석유관리원이 제16대 신임 이사장으로 최춘식 전 국회의원의 취임식을 개최. 최춘식 이사장은 군, 자치단체, 국회 등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석유관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낼 책임자로 평가 - 기관의 핵심 업무인 석유 품질·유통 관리와 함께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와 수소 유통전담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공공기관 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 석유관리원은 지난 41년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석유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
	□ 환경부,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 확대 (2025.01.22) - 환경부가 원더모빌리티, 삼성물산, 효성하이드로젠, 현대자동차 등과 '수소 통근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 확대로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과 ESG 실천, 쾌적한 통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원더모빌리티는 현재 수소버스 51대를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50대, 2030년까지 2000대로 확대할 계획. 환경부는 전국에 수소버스 누적 1727대를 보급했고,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는 누적 60곳(152기)을 구축 - 환경부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수소버스 정비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고, 충전과 정비 등 수소버스 운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KCL, 美 ASTM과 우주항공 표준 협력 강화 합의 (2025.01.20)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미국 ASTM과 우주항공 분야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우주항공 분야를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계획 - KCL은 2023년 9월 우주항공 분야 유일한 정부 표준협력개발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우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와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진행 중 - 양 기관은 정기적인 공동 컨퍼런스 개최와 ASTM 기술위원회 참여를 통해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인증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AI·반도체·우주 등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강화 (2025.01.22) -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 시작. 올해는 세부 프로그램을 마이크로 초격차(60개사), 초격차(182개사), 비온드 초격차(15개사) 등 3단계로 구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선발된 초격차 스타트업은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2년간 5억원의 R&D 자금 등 기업당 최대 1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과 수출 연계 지원도 제공 - 2023년부터 선발된 407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은 지원 전 대비 매출 30.3%, 누적 투자액 16.7% 증가를 기록했으며, 12개사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KG모빌리티-피니아, 수소 엔진 개발 위한 기술협력 계약 체결 (2025.01.16) - KG모빌리티가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피니아와 수소 엔진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의 'CO2 제로 저비용 소형 상용수소엔진차량 개발' 국책과제를 피니아 및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수행할 예정 - 이번 협력을 통해 KGM의 디젤 엔진과 피니아의 연료분사장비 시스템 및 ECU 기술을 결합하여 NOx 배출량 규제 수준 만족과 주행거리 500km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다목적 수소 엔진 개발을 진행. 엔진과 차량의 기본 설계부터 성능 개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기본 설계까지 단계적으로 협력 - 개발된 수소 엔진은 차량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와 산업용 기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KGM은 독보적인 내연기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엔진을 활용한 대체연료 시장 개척과 친환경 픽업 시장 확대 등 내연기관 틈새 시장을 공략할 계획
	□ "55조 시장 잡아라"...'수소 선박' 기술 선점 나선 K조선 (2025.01.17) - HD한국조선해양이 액화수소 탱크 관련 국제 선급 승인을 연이어 획득하며 수소 선박 기술 개발에 박차. 로이드선급 등 국제선급협회 소속 4개 선급으로부터 액화수소 탱크의 진공단열 기술에 대한 기본승인을 획득하고, 노르웨이 선급으로부터 용접 절차 승인도 완료 - 수소는 대표적인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수요가 늘면서 대규모 운송이 가능한 수소 운반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 운항 중에도 영하 253℃의 극저온 환경에서 액화수소 탱크의 단열 공간을 진공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국제에너지기구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 시장 규모가 2023년 2조5000억원에서 2030년 1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덴티움, 수소경제와 AI 융합... 지르코니아 기반 기술 혁신 나서 (2025.01.20) - 덴티움이 치과용 소재인 지르코니아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용 수전해 설비의 핵심 부품 개발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고온수전해 핵심부품 제조기술 개발' 과제의 총괄기관으로 선정 - 국내 20여개의 전문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덴마크 공대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국제적 연구기관들과도 협력하며 기술의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 향후 고온 및 저온 수전해용 핵심부품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 - 지르코니아는 고온에서 산소 이온을 흡수하거나 전도하는 특징을 지녀 산소가스 센서와 연료전지의 전해질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저온에서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특징을 활용하여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분리막 코팅 소재로도 활용
대학교	□ "글로벌 수소도시 완주 도약" 완주수소연구원 개원 (2025.01.22) - 완주군이 우석대학교와 함께 완주수소연구원을 개원. 연구원은 완주군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개발, 현안 사업 추진, 기업과의 상생네트워크 운영, 수소 전략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계획 - 개원식에서는 최근 수소연료전지 460억 원 미국 수출 계약을 체결한 심규정 (주) BTE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 우석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소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 개발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 -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우석대학교는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수소산업의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
해외	□ "트럼프 시대, 태양광은 영향 없어...해상풍력·그린수소 타격" (2025.01.22)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재생에너지 성장 전망에서 태양광 등 이미 경제성을 갖춘 분야보다는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됨. PwC 전문가들은 기술 분야별로 선별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블루수소, 원자력, 태양광 등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상풍력이나 그린수소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 셰일가스 증산으로 인한 미국 내 가격 하락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는 일자리와 투자, 에너지 원천 개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조정이나 기준 강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 □ "이것까지 쫓아와?"...수소용 가스터빈도 中에 맹추격 (2025.01.22) - 수소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 중. 중국 터빈 제조사 밉양이 30MW급 순수 수소터빈 점화에 성공했으며, 중국연합중공업가스터빈기술이 300MW급 대형 가스터빈 점화에도 성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막강한 시장 구매력을 앞세워 해외 업체들과 기술 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 또한 항공용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도 빠른 추격이 예상 - 전문가들은 중국이 개발한 수소터빈이 30MW로 소형이라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기술 개발 속도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 중국의 글로벌 시장 입지와 기술 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업계 예측보다 빠른 추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기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블루오리진 대형 로켓 '뉴글렌' 첫 발사...우주 시장 진입(2025.01.16) -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대형 로켓 '뉴글렌'을 성공적으로 첫 발사. 로켓은 발사 후 약 1분 39초에 최대 압력 지점인 '맥스큐'에 도달했으며, 3분 후 1단과 2단이 무사히 분리되었으나 1단의 해상 바지선 착륙은 실패 - 궤도 우주선 '블루링 패스파인더'를 실은 2단은 목표 고도에 성공적으로 진입. 2단과 블루링은 분리하지 않고 6시간 동안 함께 궤도를 돌며 통신 기능과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뉴글렌은 높이 98m, 지름 7m의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팔콘 9보다 2배에 가까운 추력을 내며, 지구 저궤도까지 45t의 탑재 중량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BE-4 엔진은 팔콘9보다 효율이 높고 25회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 □ 스페이스X '스타십' 7차 시험비행 실패...통신두절로 우주선 상실 (2025.01.17) -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이 7번째 시험비행에서 실패. 1단 로켓 '슈퍼 헤비'의 원점 회수에는 성공했으나, 2단 '스타십'의 엔진이 꺼지며 발사 8분 후 통신이 끊기며 우주선을 상실 - 발사 후 2분 42초에 고도 약 67km에서 1단 로켓 슈퍼 헤비와 분리에 성공했으며, 슈퍼 헤비는 6분 53초 만에 발사대 '메카질라'로 귀환. 그러나 스타십은 발사 7분 40초부터 엔진이 순차적으로 꺼지기 시작 - 한편 전날 발사된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도 첫 발사에는 성공했으나 1단 로켓 회수에 실패하며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양대 민간 우주기업의 경쟁이 주목받는 상황 □ ETRI-美 아르곤연구소, 우주 연구용 반도체 공동개발 협약 (2025.01.17) - ETRI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ANL)와 우주 연구를 위한 반도체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 우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 개발에 협력할 계획 - ETRI는 2000년대 초부터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용 실리콘 디텍터 개발 및 제작 기술을 보유해왔으며, ANL은 2023년부터 상보적 금속산화물 반도체 집적회로가 집적된 실리콘 검출기 제작을 위해 ETRI와 협력을 추진 - 양 기관은 고온과 저온, 방사선 등 극한 환경을 견디는 우주·국방용 반도체 기술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며, 전자이온충돌기 등 다양한 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 □ 트럼프2기 출범과 우주 경쟁 심화...우주항공업계 경쟁력 제고 논의 (2025.01.17)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025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에서 재사용발사체 기술 개발과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 기술 개발, 세계 최초 L4 지점 우주관측소 구축 등을 통한 독자적 영역 확보 계획을 발표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우주항공 분야 주요 인사들의 정부 요직 임명으로 각국의 우주항공 개발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우주항공 강국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 강조 - UAM(도심항공교통)을 완제기 및 부품 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회로 삼고, 공공수요를 통한 민간 주도 개발 및 글로벌 진입 촉진 방안도 논의
기타	- (해당 없음)